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367장(새찬송가 341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 베드로가 즉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한 장면을 앞 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 단계에 왔으나 아직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속적 정치적 성격을 가진 메시아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인식하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직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한편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쳐올 일들로 인한 충격을 제자들이 극복하도록 하려고 매우 압축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 그 일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에 의하여 된다는 사실 그리고 죽은 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까지 언급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나 별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으로 치부하고 과념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강한 주관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입관에 저촉되는 것은 배타하고 거부하든가 그 선입관에 맞게 억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방역당국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교회당에서의 예배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라는 기이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방역당국의 교회에 대한 규제 정도가 심하여 교회가 크게 반발하자 방역지침을 위반

한 교회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에서 교회 출입문을 폐쇄 조치하며 심지어 담임목사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도 하였습니다. 교회들도 맞대응하여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의 감염력과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는 부득이 규제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든 모두 금지한다.”라는 탄압은 아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온라인을 활용하여 각 집에서 예배하는 방법으로 대체(代替)하였습니다. 이런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교회들은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행정 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교회가 반발한 주된 이유는 법 적용대상에 공정성이 없고, 협조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 집행 행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회당에서의 예배에 대한 제한은 완화 및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실내에서의 방역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므로 반발할 것 없습니다.

3년에 걸친 팬데믹 비상 상황을 대처하면서, 우리는 예비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과 같은 혹은 이보다 더 심한 팬데믹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극심한 온역이 있을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3년 동안 교회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설교 내용을 글자로 화면에 올리므로 시청각 교육의 유익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집중과 전달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정도가 어떠한 청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잠 4:20,21)는 말씀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면예배, 비대면예배’라는 용어는 비성경적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예배에 관한 성경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다만 신자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 지시 용도로 만든 용어입니다. 예배의 참된 뜻을 왜곡하게 하는 이런 용어를 교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예배를 정의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대하여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는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라고 예배의 정의를 밝히 설명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 또는 ‘영과 진리’로 번역합니다. 그 외에는 예배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 설교자, 음향방송시설, 봉사자 등은 예배의 보조 수단입니다. 보조 수단이 불필요하거나 무익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우 훌륭한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수단을 ‘예배의 성립 요소’로 알거나 가르치는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1956년입니다. 몇몇 교회 외에는 대체로 교회 건물은 규모가 작았고 시설도 초라했습니다. 음향방송설비가 없었습니다. 간혹 풍금은 있어도 피아노는 없었습니다. 냉난방설비만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교회당 모습이 고정 관념화되어 음향방송장비, 전자 오르간, 냉난방시설을 예배 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 분별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회 갈 때 걸어서 가야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

는 법이 적용되는 교파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피아노를 들여놓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인해 유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분열된 교파도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관념을 절대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에 관하여는 철두철미 성경대로의 이해와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자기 교회는 소위 말하는 비대면예배를 거부하고 온갖 행정조치를 당하면서도 대면예배만 고집했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다면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를 정죄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육체가 예배하는 현장에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만일 언젠가 더 강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팬데믹 상황이 된다면 결국 자기주장으로 인한 자승자박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적용해야 할 핵심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을 가진 신자가, 진리이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대면, 비대면이라는 말은 예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예배의 본질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비성경적인 관념은 말씀으로 파쇄해야 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떠한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연유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매우 함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짙막한 말씀이라도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풍부함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삶의 지침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각오하고 실천해야 할 지침들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신 까닭은 예수님의 수난 예고에 대해 베드로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한 예수님의 뜻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에 의하여 피 흘리며 죽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대 때문에서만 아니라 조만간 위대한 왕국과 그 통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능하신 손을 뻗치기만 하면 될 메시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이 언젠가 될 권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였습니다. '붙들었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기 곁으로 당겨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의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든 그 뜻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행동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부정하는 이론과 주장은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철학과 신학과 교리는 모두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달리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이단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은 모두 사이비 신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사탄아 물러가라"는 꾸짖음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다 사탄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면 마귀가 틈탈 곳이 없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나 "예"라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상반되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아니요"라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며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이런 저런 자기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되어 낳은 자식 독자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불과 칼을 준비하여 출발했습니다. 사흘 길을 말없이 갔습니다. 드디어 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솟양 한 마리가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솟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긍정하려면 그 말씀에 어긋나는 자기 생각과 주장을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앞날의 진로,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명석한 두뇌와 과감한 결단력과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그가 열심을 내어 외국성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여 일행을 이끌고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홀연히 정오의 태양 빛보다 더 강렬한 밝은 빛이 그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극적인 회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의 일생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밝혀지면 자기의 계획을 즉시 백지화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라는 찬송 가사의 첫 소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신 것입니다.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유일하고, 단회적(單回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육신의 연약과 질고, 경제적 곤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는 십자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극복하고 변화시켜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저야 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며 전파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손실, 희생,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0-12).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를 만나 제가 위로하니 대답하기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나의 가족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 핍박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성도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장로가 되셔서 봉사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그 다음은 "나를 좇을 것이니라"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른 아

침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고기잡이하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먹었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세 번 반복된 후 예수께서 베드로의 앞날에 있을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겠고, 다른 이가 네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하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시험 들어 그만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은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좇을 것이니라"하신 말씀은 현재 명령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좇아오라는 강한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좇아가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이 세 가지는 마치 세 개의 변과 각을 가진 삼각형처럼 분리될 수 없는 관련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기로 각오하고 결단하여도 실천함에 있어서는 역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겔사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심문받으시는 예수님 면전에서 대제사장의 종이가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실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두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마 26:41)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 행하는 것은 없노라"(롬 7:18)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자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생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